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 : 혼합방법론 접근

이 재 림(성균관대 교수) · 손 서 희(숙명여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모가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하게 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관련 특성, 일 관련 특성, 일-가족 갈등 변수는 무엇인가? 둘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는 어떠한 맥락에서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하게 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하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s)을 사용하였다. 양적 방법으로는 (1) 미취학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고 (2) 전일제 직업을 갖고 있으며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324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 여부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관련 특성, 일 관련 특성, 일-가족 갈등이었다. 질적 방법으로는 질문지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조모의 양육지원을 받는 기혼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자료를 중심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질문지 조사에 참여한 취업모의 30.9%가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중 막내자녀 연령과 남편과의 소득 차이, (2) 가족 관련 특성 중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친족의 양육지원, (3) 일 관련 특성 중 직업몰입도와 근무시간 유연성, (4) 일-가족 갈등 변수 중 가족생활로 인한 일에서의 긴장 갈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막내자녀가 상대적으로 어린 경우, 남편과의 소득 차이가 큰 경우, 친족의 양육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직업몰입도가 낮거나 근무시간 유연성이 낮은 경우, 타인 양육 죄책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가족생활로 인한 일에서의 긴장 갈등이 높은 경우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해 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취업모가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하게 되는 맥락에 대한 중심주제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중단 의의’, ‘경제활동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 ‘경제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상황’의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은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결단이 필요하게 될 잠재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친족의 양육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하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면접참여자들은 경제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예를 들어, 가족의 경제적 복지, 주택마련, 자녀교육비 저축)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면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가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하게 되는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취업모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를 통합함으로써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의 맥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